

Session 2 Why Study the Signs of the Times

왜 시대의 징조를 연구해야 하는가?

I. REVIEW

복습

- A. Can God's people know that they are living in the generation of the Lord's return? The biblical answer is, "Yes." Scripture has provided much information on this topic *that believers can know*. The signs related to our Lord's coming are not so mysterious that believers cannot understand them. A believ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determined to gain wisdom*, can understand biblical prophecy.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는 세대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가능한가? 성경적인 답은 “그렇다”이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표적들은 성도들이 공부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부분이 아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성도라면, 그리고 지혜를 얻고자 **결정한 이들이라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다.

- B. The *Olivet Discourse* gives us the bulk of what Jesus disclosed related to signs that would indicate His coming. Matthew 24 is one of the chief passages that we want to be familiar with as it gives detail to many of these key signs.

예수님께서서는 **감람산 설교**에서 자신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징조와 연관되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 마태복음 24 장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징조들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 C. Jesus commanded that we “*learn*” and “*know*” the signs that would indicate the season of His arrival. This is not optional for God's people.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재림하시는 시즌을 알려주는 이 징조들에 대해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함을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다.

- D. Christ used the parable of the fig tree to identify the manner in which signs indicate a change of the prophetic season, alerting us to the nearness of His return. The changes of the fig tree are *visible* and *discernable*. They are not deep, unattainable mysteries. They can be discovered and understood by any believer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nd determination not to quit.

그리스도께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사용하셔서, 어떤 징조들을 통해 예언적인 시늬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에 생기는 변화는 눈에 보이며,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 깊거나 도달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멈추지 않고 계속 이해해나가기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일이다.

- E. Daniel prophesied a future people of understanding that will instruct many concerning the unfolding of prophetic scripture. This instruction will produce *courage* in the hearts of God’s people as they engage in this glorious hour of history. *Many* will be saved as they repent and turn to righteousness through the witness of the Church.

다니엘은 미래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예언적인 구절들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이 영광스러운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용기가 생겨나게 될 것이며, 교회의 증거를 통해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옳은 데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³²...but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be strong, and carry out great exploits. ³³And those of the people who understand shall instruct many...³⁴...many shall join them by intrigue...(Dan. 11:32-34)

³² ...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³³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 ³⁴ ...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단 11:32-34)

³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and 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like stars forever and ever. (Dan. 12:3)

³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II. THE COMMAND TO KNOW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를 알도록 명령하심

- A. Jesus commanded believers in the generation of His return to *know that His return was near*. He said that when they saw “*all these things*” that Scripture prophesied as signs, then they were to know with certainty that His coming was within that generation. There is only one generation in which “*all these things*” will happen at the same time and on a global scale.

예수님께서서는 재림의 세대에 있을 성도들이 그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것을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성경이 징조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분의 재림이 그 세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알아야 함을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이”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될 세대는 단 하나뿐이다.

- B. Some of these things are beginning to happen together on a global scal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Jesus called His people to know *the generation* of His return, but cautioned that no one knows *the day* of His return.

이 일들 중 어떤 일들은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적 스케일로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이 일어나는 세대를 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재림이 어느 날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하셨다.

³³“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at the doors! ³⁴Assured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by no means pass away till all these things [Jesus’ coming] take place...³⁶But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but My Father only.” (Mt. 24:33–36)

³³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³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성취] ³⁶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 24:33-36)

1. We must not use Jesus’ statement that *no one knows the day or hour* to justify neglecting biblical study. We must be careful to avoid using this passage in the opposite way that Christ intended.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도 그 날이나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과 정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Jesus had just given us the primary signs that will alert the Body of Christ to the timing of that generation so that we can watch and pray.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 세대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는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 C. Though we do not know with certainty, we can observe *some* of the biblical signs of the times happening in our generation. We *may* be in the early days of the generation that will witness the return of Christ. This is only an opinion.

우리가 그 날과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시대의 징조의 일부가 우리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있다.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는 세대의 초기에 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의견일 뿐임을 밝혀둔다.

1. It is not wrong to have an opinion on this if we allow it to be based in *biblical observation* rather than *personal revelation*. Where many err is when a personal revelation is received and then taught in way that violates the Scriptures.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에 기반하지 않고 성경적인 관찰에 근거를 둔다면, 이에 대해 의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이다.

2. We want to walk in humility, holding our opinion with an open hand and allowing the Scripture to be the barometer by which we identify the season of Christ’s return. Christians are called to be students of the Word of God.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즌을 파악하는 기준이 성경이 되도록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생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 D. Jesus rebuked His generation for not being able to read the signs of His first coming.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초림하신 세대가 그분의 초림의 징조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다.

²“*You know how to discern the face of the sky, but you cannot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Mt. 16:2)

³ ...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 16:3)

- E. Israel did not understand that God Himself was visiting them during the time of Jesus. This led to great sorrow, unbelief, and devastation for many as they missed out on participating in the purposes of God in their generation.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뤄나가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과 불신, 황폐함을 겪게 되었다.

⁴³“*For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surround you...⁴⁴and level you...to the ground...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Lk. 19:42-44)

... ⁴³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⁴⁴ ...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쉬운 성경: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 이다] (눅 19:42-44)

III. COMMON MISCONCEPTIONS

일반적인 오해

- A. *Misconception #1*: that no one can understand end-time Scriptures or the signs of the times.

오해 #1: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징조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 B. **Misconception #2:** that understanding the end times will *minimize the work of the kingdom*.
 오해 #2: 마지막 때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축소되게 된다.**
- C. **Misconception #3:** since we cannot know the day of His return, we cannot *know the generation*.
 오해 #3: 우리가 그분이 재림하실 날을 알 수 없기에, **그분이 재림하시는 세대도 알 수 없다.**
- D. **Misconception #4:** that every generation has believed that they were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would return. It is possible that a very small number of believers in every generation believed this. However, only in *one generation* will the *majority* of God’s people believe in a *sustained way* (for decades) that they will witness Jesus’ return.
 오해 #4: 앞선 모든 세대들이 자신의 세대가 주님의 재림의 세대라고 믿었다.
 매 세대의 아주 작은 수의 성도들이 이것을 믿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 간) 믿는 세대는 오직 **한 세대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IV. AVOIDING DECEPTION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함

- A. Jesus warned the deception would be among Satan’s primary tactics utilized against God’s people. He knows that many Christians can easily resist a direct lie. The dangers in deception are half-truths.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주요한 전략으로 미혹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뻔한 거짓말은 쉽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 미혹이 가진 위험성은 이것이 반 쪽짜리 진리라는 것이다.
⁹The coming of the lawless one [the Antichrist] is according to the working [plans/schemes] of Satan, with all power, signs, and lying wonders, ¹⁰and with ALL unrighteous deception among those who perish, because they did not receive the love of the truth, that they might be saved. ¹¹And for this reason God will send them strong delusion, that they should believe the lie. (2 Thess. 2:9-11; emphasis added)
⁹ 악한 자[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계획/계략]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¹⁰ 불의의 모든 속임 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¹¹ 이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살후 2:9-11)
- B. Satan will again be up to his old schemes. It was half-truths that caused man to stumble and be removed from the Garden, and it will be half-truths that will cause some to stumble and miss out on entering the “greater Garden” of the glorious age to come.

사단은 오래 전에 사용했던 계락을 다시 한번 사용할 것이다. 그는 반 쪽짜리 진리를 사용해서 인간을 넘어지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제거했고,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반 쪽짜리 진리를 사용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해서 “더 위대한 동산”인 다가올 영광스러운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⁴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ake heed that no one deceives you.” (Mt. 24:4)

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 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 24:4)

- C. The enemy is referred to as a Liar and Deceiver (Jn. 8:44; 1 Jn. 2:22; 2 Jn. 2:7; Rev. 20:2, 3). If he can get the eyes of believers off Jesus and fixated on trouble, false signs and wonders, or themselves, he can more easily lead God’s people astray. Our primary weapon against deception is the Word of God. Every Christian is exhorted to utilize this weapon, obey it, and seek to understand its meaning.

우리의 대적은 거짓말쟁이, 미혹하는 자라고 불린다 (요 8:44; 요일 2:22; 요이 1:7; 계 20:2, 3). 만일 그가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돌리고, 그들의 시선을 문제들과 거짓 이적과 기사, 그리고 성도들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쉽게 길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미혹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고, 이에 순종하며,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 D. Paul told believers that they were not in *darkness* related to this time. The darkness speaks of the prevailing spirit of unawareness concerning the second coming. The Church can know the times and seasons related to the Lord’s coming.

바울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어둠에 있지 않음을 말했다. 이 어둠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을 말한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시대, 시즌을 알 수 있다.

²For you yourselves know perfectly that the day of the Lord so comes as a thief in the night [the unprepared will suffer loss]...⁴But you, brethren, are not in darkness, so that this Day should overtake you as a thief...⁶Therefore...let us watch and be sober. (1 Thes. 5:2-6)

²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됨]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 ⁶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 5:2-6)

1. The thief analogy underlines the awareness that loss could have been avoided by watching. Some will be taken unaware by the world events and pressures that begin to manifest in the last days.

여기서 사용된 도둑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다면 손실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세계에 일어나는 일과 어려움들로 인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휩쓸려가게 될 것이다.

2. Those who are expecting to be removed from trouble or believe that the trouble outlined in Scripture is symbolic will face an increase of unnecessary pressure. We want to gain insight into the reality and weight of the coming trouble to prepare us to stand as bold witnesses in the midst of these things.

이 어려움의 때에 성도들이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성경에 나와있는 어려움들이 단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가올 어려움의 실제와 그 무게를 이해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담대한 증인으로서 서야 한다.

3. The return of Jesus will be the most glorious hour of history, and yet many are confused and living *in darkness* regarding the signs of that time. The Bride of Jesus, the Church, will participate in unprecedented power and victory; we are to look for that Day with eager anticipation.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때에 많은 이들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 혼란에 빠지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때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전에 없던 권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큰 열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한다.

- E. *The deception of a scoffing spirit:* To have a scoffing spirit means to hold something in derision and contempt or have a cynicism toward something or someone. There are some who have a scoffing spirit toward the message of the coming of the Lord. This spirit leads many into the lie of the enemy that future biblical prophecy is irrelevant, some going as far as to urge believers to disregard it entirely.

조롱하는 영의 미혹: 조롱하는 영은 어떤 대상, 혹은 사람들을 향해 조롱, 경멸, 또는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은 성경이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대에 적절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며, 많은 이들을 대적의 거짓말로 이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¹Beloved, I now write you...²that you may **be mindful** [urging to recall a good memory] of the word which were spoke before by the holy prophets...³knowing this first: that **scoffers will come in the last days, walking according to their own lusts [longing/desires],** ⁴and saying,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all things continue as they were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2 Peter 3:1-4)*

¹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 ² 곧 기록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³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갈망/소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벧후 3:1-4)

1. The Holy Spirit highlighted this scoffing spirit concerning the return of Christ as a trend that would emerge in the last days (vs. 3).

성령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경향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조롱하는 영이 있을 것을 강조하셨다 (3 절).

2. Peter tells us that scoffers will walk according to their own lusts. The scoffing spirit is manifested as the fruit of internal desires that are in conflict with God's Word. These powerful desires (lusts), spring from all manner of worldly love, distorting the perception of even well-meaning Christians and minimizing the teachings of Bible.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조롱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치는 내적인 열망이 열매 맺혀 나타나게 된다. 이 강력한 갈망(정욕)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선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경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왜곡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축소해버린다.

- F. This is one of the reasons we must seek truth and close the door to besetting sins. These desires, left unattended over time, make us vulnerable to deception. Being in circles of relationships that have biblical standards of holiness and sin and a vision of wholehearted love assists us in combating deception.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에 대해 문을 닫아버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이 열망들을 오랜 시간 그냥 내버려둘 때, 우리는 미혹에 약해지게 된다. 우리가 거룩과 죄에 대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이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미혹에 대해 싸워나가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준다.

- G. The only way that we discover that we are in deception is to evaluate our perceptions and values through the lens of the Word of God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e can do this. We can engage the Holy Spirit in dialogue as we seek to understand His Word!

우리가 미혹에 빠져있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며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성령님과 대화를 해나가며 그분의 말씀을 이해해나갈 수 있다!